

2023년 8월 6일(주일) 제1642호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오랜 기도로 준비한 '2023 교회학교 연합수련회'와 '2023 한마음축제'가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7월 27일(목) 청년부수련회를 시작으로, 7월 28일(금)-29일(토)에 영·유아부를 제외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성도들이 아가페타운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특강도 듣고 촌극도 보고 푸드트

럭에서 점심과 간식을, 그리고 즐거운 물놀이까지 알찬 일정을 보냈습니다.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이번 연합수련회를 통해 서울교회 교회의 미래를 보았다라고 하실만큼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참석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29일(토)에는 정말 오랫동안 전교인이

함께한 '2023 한마음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교통편으로 모인 성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식사 후 오지얼 장로님의 사회와 손달익 위임목사님의 설교로 여는 예배를 드린 후 주최 측에서 준비한 다양한 레크레이션과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풍성한 경품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위원들과 진행위원들, 협찬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한 모든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23년 여름은 태양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종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김예준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사진:이승준 안수집사, 임종현 안수집사, 유은경 집사

# 작은 이들의 벗이 되는 그리스도

(마 25:31-46)



손달익 위임목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체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라고 하였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받을 사 람의 조건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는 진실한 실천적 신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 분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 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마 26:11, 요 12:8) 최근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우리 사회 는 수많은 작은 자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생 각해 보았습니다.

## 1. 모든 삶에는 종말이 있다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는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종말이 있고 그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 24장, 25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마 24장에서는 종말의 징조와 현상들에 대하여, 마 25장에서는 종말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 셴습니다. 마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가 열 처녀 비유 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둘째는 달란트 비유로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셋째 비유는 본문 말씀인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 비유가 주님 앞에 서 는 날을 위해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교훈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그 기간 동안 충성하라는 교훈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이웃에 대 한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교훈입니다.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인적 종말과 세상 끝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신앙고백 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우주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어 떤 모습으로 종말을 맞이할지는 하나님께 속한 신비의 영역이지만 우리 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을 말씀 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 된 영원 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까?

## 2.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주님은 구원 받을 자들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40절)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 를 결정짓는 기준이 뜻밖에도 우리가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치고 외면하 고 살았던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선행이라는 공로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달 란트의 빛을 탕감 받은 자 같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신앙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즉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가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작은 자들은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 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일용할 양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 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구보다 많이 노력하고 처절하게 투쟁하듯 살아도 삶의 그늘진 골짜기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 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제시된 작은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종 류의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장애우들, 노숙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탈북 난민들, 고독한 삶을 사는 노인들, 수용시설에 묶인 갇힌 사 람들, 극빈 국가의 국민들, 선교지의 위기 상황 아래 있는 주민들, 전 세계 의 난민들 등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우리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우면 어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찌 예수의 길을 따 르는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이 넘쳐서 그 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들이 하 나님께로 돌아오는 결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 히 맺혀지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라고 하시고,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병든 세상을 치유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 3. 이 시대를 치유해야

주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이렇게 작은 자들 을 사랑하는 실천을 기준 삼으시고 '그들은 영 별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고 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 의 실천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그 온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뛰어난 선교방 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설 명하시면서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 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고 하셨습니다. 세

상이 험악해지고 살기는 더 어려워질 텐데 사랑까지 식어지는 악순환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하게 예견한 바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딤후 4:3) 마지막 때가 오면 진리와 정 의의 바른 교훈 대신 이기심에 가득한 사욕 추구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현실 지표 가운데 국민의 우울 수준이 36.8%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인 가구가 전체의 39.2%에 이르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이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급증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기심에 몰들어 냉정함이 확산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주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로 살라고 하시고,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병든 세상을 치유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 2:3)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남을 나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는 이 세상의 청지기들이요 상처 입고 병든 세상을 위한 치유자들입니다. 교회가 허영과 사치와 세상적인 세력 과시를 멈추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 가까지도 감당하시던 주님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때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 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마 25:34)고 하 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 기도로 답을 구하는 삶

노연신 성도 (4교구 3다락방)

저도 다른 이들처럼 세속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가슴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새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에서 죄인으로 지내면서 “왜 우리(인간)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영위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날들이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인간으로써 불완전한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저에게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기도로서 답을 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말씀으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 겸손한 마음으로

안현지 성도 (1교구 2다락방)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참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매일 깨닫고 실천하여 살기는 어렵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 교회학교 연합수련회를 마치며

이예은(초등부 6)

방학이라 늦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련회 당일 즐거운 마음으로 일찍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놀이를 하면서 푸드트럭에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것은 수련회를 통해 중등부 언니들과 많이 친해진 점입니다. 늘 ‘언니’로만 살아온 첫째인 저에게는 언니들의 따뜻한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녁 집회 때 기도회가 인상 깊었습니다. 공부에 바쁜 고3 오빠, 언니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했습니다.

오빠, 언니들의 믿음을 보면서 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습니다. 수련회 때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예지(초등부 4)

6개월 전 계획한 여름휴가와 수련회가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가족 여행을 하루 늦추기로 하고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선생님들과 집사님들 모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게 되었고,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QT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듣고 저도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신 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되어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보

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저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베풀어 주신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저도 제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 첫 여름수련회!

유다연 (유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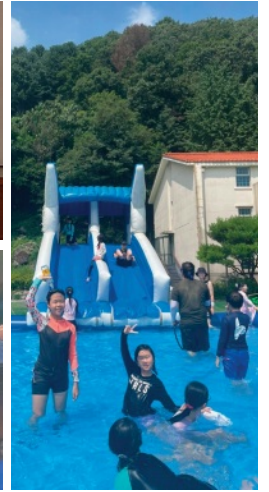


저는 여름수련회가 처음이어서 이번에 아가페타운에 갔을때 어떤 것을 할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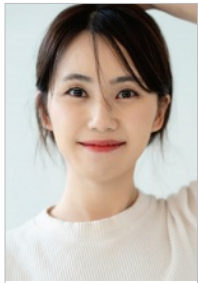
처음 순서는 '여는 예배'였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형극을 본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공의 집안은 불교였는데 짝궁이 계속 교회에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할 수 없이 교회

에 갔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너무 좋아져서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아버지가 교회에 가면 혼난다고 했지만 계속 교회에 갔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즐거운 활동도 많았습니다. 물놀이도 너무 재미있었고 동물팁과 직업팁으로 나누어 여러 시합을 한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겨울수련회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 그 어떤 때보다 행복했던 7주



박재연 성도  
(9교구, 찾아가는힐링 연기, 말쟁 지도)

'23년 6월 10일(토), 연극부 친구들과 첫 만남을 하기 전, 작성했던 작업일지를 펴보았습니다.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공연을 만들고 싶다. 아이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아이들이 연극을 통해 자기를 잘 표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직접 참여하는 아이

들뿐만 아니라 공연을 보러 오실 성도님들을 염두에 두며 연극을 만들자.'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대로 시작하는 날부터 공연하는 순간까지 '아이들과 정말 즐겁게 놀아보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되뇌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전문작가에 의해 이미 잘 쓰여진 대본과 연출님의 지시에 따라 제 역할의 연기를 하는 배우의 역할만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본 작성이나, 연출의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 현종필 목사님과 김혜연 장로님으로부터 촌극에 대한 연락을 받고, '과연 내가 촌극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언젠가 나의 전공으로 하나님께 꼭 봉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일이 착착 해결되는 것

은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주일에 1시간씩 7주, 7시간 만에 연극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글을 쓰고 지우고, 밤을 지새우며, 무언가 우리가 함께 할 거리를 만들어서 주일 10시에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면 맘처럼 되지 않아 또다시 집에 와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께서 연극부 친구들과 공연을 볼 많은 성도님들을 책임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한 주 한 주 지나가며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마음을 열어 주었고, 시간이 갈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연극 연습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연기할 때가 아닌 순간에도 연습 과정을 계속 지켜보며 장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신의 대사를 직접 작성하여 가져오는 아이, 소품과 의상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아이, 무대에 소품으로 올라갈 간판 그림을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내주는 아이, 자신이 할 연기의 움직임을 만들어 오고, 연주할 악기를 연습한 후 늦은 밤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거구나!' 그 기적의 자리에 나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도 같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7주 동안 분명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컸던 제 안의 기쁨과 행복, 충만함과 감사함, 그리고 사랑의 마음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촌극 만들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꾸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연극부의 매시간 연습 때마다 시종일관 묵묵히 옆을 지켜 주시며 혹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바로바로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손주찬 전도사님을 통해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주 연습실에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며,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셨던 김혜연 장로님, 옥종호 부장님, 강은경 부감님을 통해 진심어린 사랑과 소리 없는 봉사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친구처럼 다가가 힘을 주셨던 현종필 목사님을 통하여 배려있는 어른의 태도와 헌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를 보시면 변함없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장석남 목사님을 통해 꾸준한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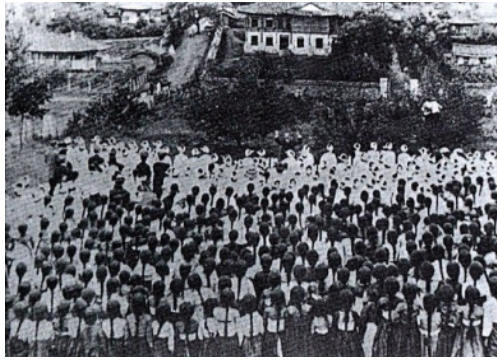
저는 13살 때부터 서울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중·고등부를 다니며 뛰놀았던 기억들이 교회입구에서부터 매 순간 떠오르곤 합니다. 그 후, 1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그 당시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같은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어떤 때보다 행복했던 7주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교회에서 받은 사랑으로 또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이들과 연극하고 연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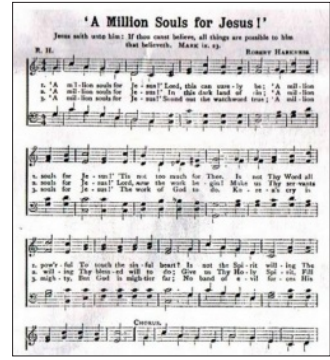
## 백만의 영혼을 주님께! 백만인구령운동



백만인구령운동의 주역 스톡스, 리드, 갬블 선교사(오른쪽부터)



1909년 평양장로회 신학교 앞마당에서 개최된 선교사 찰스 알렉산더의 평양 집회



백만인구령운동 주제가 "백만인을 예수에게로"

백만인구령운동은 1909년 9월부터 1911년 3월 사이에 진행된 한국교회의 대규모 전도운동이다. 선교사가 기획하고 한국인이 실행한 이 운동은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기독교 신자수는 20만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100만 명 전도는 1년 남짓한 사이에 5배 이상으로 성장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세의 확장은 크게 보이지 않았고 감리회는 오히려 교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것이 더욱 기현상인 이유는 애초에 이 운동의 발상이 감리회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1908년부터 선교사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가장 큰 걱정은 1907년 대부흥운동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1909년 초 개성에서 활동하던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생활이 나태해지고 있음을 반성하며 기도회를 가졌다. 이들 중 스톡스(M. B. Stokes), 리드(W. T. Reid), 갬블(F. K. Gamble), 세 명은 하나님에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모두 성령을 체험했다. 스톡스는 1년 사이에 5만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한국인 신자들도 스톡스가 받은 사명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은 그해 9월 열린 남감리회의 선교연회에서 확대되었다. 연회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그 열기에 고무된 참석자들은 '올해 안에 20만 명을 구원'하기로 결의하면서 다른 선교회들도 함께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기도는 바로 응답받았다. 10월 재한 개신교복음주의선교회 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는 남감리회의 '전체 선교회의 공동표어를 채택하자'는 제

안을 받아 '금년에 한국에서 100만 영혼을 그리스도에게'(One Million Souls for Christ in Korea This Year)를 표어로 정했다. 백만인구령운동의 출발이었다.

운동의 촉진을 위해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속속 한국을 찾았다. 채프먼(J. W. Chapman), 알렉산더(C. M. Alexander)가 부흥회를 하고 돌아갔고 데이비스(G. T. B. Davis)는 한국에 남아 순회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전도의 열기가 삼시간에 퍼져나가면서 교파의 경계를 넘어 대규모의 전도단이 조직되었다. 전도단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복음서를 판매하였다. 수십만 권의 복음서와 수백만 장의 전도서가 전국에 배포되었다. 연합기도회, 매일기도회 등이 끊임없이 열렸고 성도들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임해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했다.

사람들의 헌신이 열기를 더 하면서 '날연보'(Day Offering)가 확산되었다. 날연보는 헌금을 하지 못하는 교인이 자신의 시간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 특정일을 전도하는 날로 약정하는 것이었다. 선례 없는 독특한 현상이었다. 전국적으로 연보로 바쳐진 날이 10만 일을 넘어섰을 정도로 한국의 신자들은 전도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바쳤다. 한국인들의 열정과 헌신에 더해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진 길선주, 김억두 같은 한국인 부흥사들이 부상하면서 선교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리더십에 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교세의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1911년에는 그레도장로회의 성장, 성결교회와 침례교의 약진으로 전반적인 교세가 늘어나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1912년에 급감하였다. 장로회와 감리회

의 전체 교인 수를 보자면 1910년 178,192명에서, 1911년 181,296명으로 잠시 늘었다가 1912년 157,902명으로 급감하여 1909년 수준(157,663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 운동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았다. 물론 선교사들은 열과 성을 다한 한국인 신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원하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긴 호흡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말자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운동은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성공한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 신자들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특히 1905년 을사조약, 1907년 정미조약으로 일제의 조선 병탄이 확실시되자 선교사들은 한국인 신자들이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게 되면 그들 스스로도 피해를 입고, 교회와 일제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걱정하였다. 백만인구령운동의 또 다른 목적은 신자들에게 종교적 열정을 불어넣어 현실 세계의 모순에 지나치게 몰두하기보다 구령운동에 더 집중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이는 확실하게 성공하였다. 덕분에 선교사와 일제는 한일강제병합 시기에 적대적 관계를 면하고 공존의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백만인구령운동은 '인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오만함으로 인해 실패한 운동'(보수적 신앙의 입장), '한국인들이 민족문제에 눈감게 만들기 위해 서양인이 기획한 운동'(민족주의적 입장)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운동은 한국인들의 신앙적 열정이 폭발한 전도운동으로서 한국인의 교회적 리더십이 출현한 계기이자 신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헌신적인 신앙생활이 한국교회의 특징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였다.



백만인구령운동 서울감리교회 집회



평양 장대현교회 여성도석

**식사 제공**

- 3교구 전용운-전용천 집사  
(아버지 전광영 은퇴안수집사님의 생신을 맞아 감사드리며)

**열린프로그램 여름학기 모집**

- 1. 학기 운영 : 클래스당 3개월 단위 (겨울, 봄, 여름, 가을), 10주 코스
  - 2. 23년도 여름 학기: 7. 8일(토)-9. 10(주일), 10주
  - 3.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3개월 : 45,000원) / 교회지원 45,000원
- ※ 단, 교회지원은 서울교회 등록교인으로 한정하며 1인이 2개 클래스 이상 신청 시, 교회지원은 1개 클래스만 적용됩니다.
- ※ 교회 지원금은 이번 학기까지만 적용
  - 4. 문의 및 신청 : 남재은 집사(010-9189-8019)
  - 5. 구글 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8SRFfuTYF8ucwEEw5>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클래식기타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한도연 선생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90분)	5회	505	최명아 선생
찾아가는힐링연기	토	토 12:00-(120분)	5주	701	박재현 배우
말씀(말씀안에 성장성극)	주일	10:00-	10회	505	박재현 배우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8월7일	월	사 48-53		8월7일	월	수 15-19	
8월8일	화	사 54-57		8월8일	화	수 20-24, 샛 1-3	
8월9일	수	사 58-61		8월9일	수	샛 4-8	
8월10일	목	사 62-66		8월10일	목	샛 9-14	
8월11일	금	렘 1-4		8월11일	금	샛 15-21	
8월12일	토	렘 5:1-7:29		8월12일	토	룻 1-4, 삼상 1-3	
8월13일	주일	렘 7:30-12:17		8월13일	주일	삼상 4-11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8월 절정에 이른 무더위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증언하며 살게 하소서.
- 전교인 한마음축제와 연합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 위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말씀에 더 진지하게, 서로에게 더 친절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 연이은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전쟁과 재난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복음화된 통일국가로 나아가도록 이 땅을 친히 다스려 주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 박미라, 최중국
- ◇ 준전임전도사 :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